

광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대토론회

7일 광주시청 회의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모색 정순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기조강연도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의 현실적 해법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광주에 적용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주민 자치는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해 거주 공간의 중요한 사항을 협의·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서비스는 행정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정책 등을 의미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7일 오전 10

시부터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형 주민자치 및 공공서비스 창출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전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을 신설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은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의 관점에서 읍·면·동의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순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과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의 역할' 기조강연을 통해 광주가 나아가야 할 자치분권과 주민 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어 하경환 행안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주민자치지원팀장, 김재철 광

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제할 예정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광주형 주민자치와 공공서비스 창출 조건으로 ▲주민참여 확대 ▲민주시민교육과 활동가 및 혁신가 육성 및 활동지원 ▲정책부서의 협업 추진 ▲정부정책의 통합적 관리와 운영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발제 후에는 안평환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를 좌장으로 김광란 광주시의원, 손명희 광주시 공동체지원담당, 배철진 광산마을라디오 대표, 주경미 광산공공활동지원센터장, 김오숙 광주시 사회적경제팀장 등이 종합토론에 나선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여성벤처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 30여 업체 식품·의류·공예품 홍보

광주·전남 여성벤처기업의 우수제품을 홍보하는 제6회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제품박람회가 5일까지 3일간 시청 1층 시민실에서 열린다. <사진>

사단법인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가 주최하고, 3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식품류, 의류, 공예품, 건축 소품 등 다양한 품목의 여성기업 제품 홍보와 취업상담과 체험행사 등을 진행한다.

또 이웃나눔 부스를 운영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게 되며 창업상담 부스 통해 채용계획이 있는 여성기업을 홍보하고,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컨설팅도

운영한다. 행사 첫날 '꽃바라 떡 만들기 체험'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천연 염색 스카프 체험, 석고 천연방향제 만들기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했다.

3일 열린 개막식에는 정종제 행정부시장, 김동찬 시의회 의장,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이운형 함평군수, 김진형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여성벤처인들을 격려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추석 귀성객 등 이용 다중이용시설 161곳 오늘부터 안전점검

광주시는 추석에 대비해 5일부터 18일까지 귀성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161곳의 안전을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추석명절을 전후해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판매시설 ▲버스터미널, 지하철역사 등 여객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공연 및 관람시설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물 주요 구조부 안전상태 ▲전기·기계(승강기)분야 시설물안전관리 ▲가스 등 화기 사용 및 취급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물 운영 기준의 적정성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상태 등 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를 살펴본다. 안전점검은 시민안전실 주관으로 시·구 공무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시민관찰단이 참여한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하도록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응급조치 후 사안별 관리계획을 수립해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인도네시아 현지 교원 초청

광주시와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초청으로 2일부터 3일간 광주를 방문한 인도네시아 현지 교원들이 지난 3일 광주 수완중에서 수업 참관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간담회 갖는다

국토부 사업 선정 따라 내일 주민 참여 독려·의견 수렴

광주시와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6일 오후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회의실에서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주민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광주역전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 벨리'가 선정

됨에 따라 공모사업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설명, 도시재생 사업방향 논의, 뉴딜사업에서의 협업체(주민) 역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광주역 도시재생협의체와 상생협의체 등 지역주민이 참석한다. 센터는 광주역 뉴딜사업을 문화산업 거점조성

과 청년창업 육성을 핵심사업으로 올해 5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광주역 도시재생협의체를 확대 활성화 계획을 수립,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모델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안평환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대표이사는 "광주다운 도시재생"의 핵심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스쿨존교통안전기술개발' 사업 '국민안전증진사업' 선정 정부 지원 받아

광주시가 스쿨존 안전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광기술원과 협으로 추진한 '스쿨존 교통안전 기술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위원회의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주관기관인 (주)웨이브스스쿨과 참여기관인 (주)솔크로스, 한국광기술원은 내년 8월 말까지 1년간 총 2억38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선정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하게 됐다.

선정과제는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달성을 위한 '영상인지 기반 실시간 감시 및 알람시스템 개발' 과제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광주지역 초등학교 3곳에

시범설치한 후 일정기간 모니터링을 거쳐 완전 제품화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스쿨존에 대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주력하면서 지역 연구기관과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개발 제품의 실증과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 지원해왔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등에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기업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8400만원

- ✓ 53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7층, 코너, 전망 좋음,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 ✓ 시세 - 1억 5000만원
- ✓ 급매 - 1억 1400만원

문의. 010-4920-9300